

수행-포교 둘 아닌 하나 '깨달음 향한 길'

가을이 익어가고 있었다. 서울 삼청동 칠보사 조실당의 열려진 창가에서 석주스님은 비스듬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노사(老師)의 독서 내용은 무엇일까.

“스님 그간 안병하셨습니까?” 송산스님은 석주스님께 예를 표하고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다.

“어서 오시오.” “이 아이는 제 미국인 제자인데 무심이라 합니다.”

납죽 삼배를 올리는 벽안의 젊은 선승을 석주스님은 잠시만 긴 여운의 인사로 맞았다.

“무심(無心)이라... 무심해야 공부가 되는 법이지.”

국내에서 한글경전보급과 어린이 포교에 힘써 온 석주스님과 해외를 돌며 집법의 행로를 넓혀 온 송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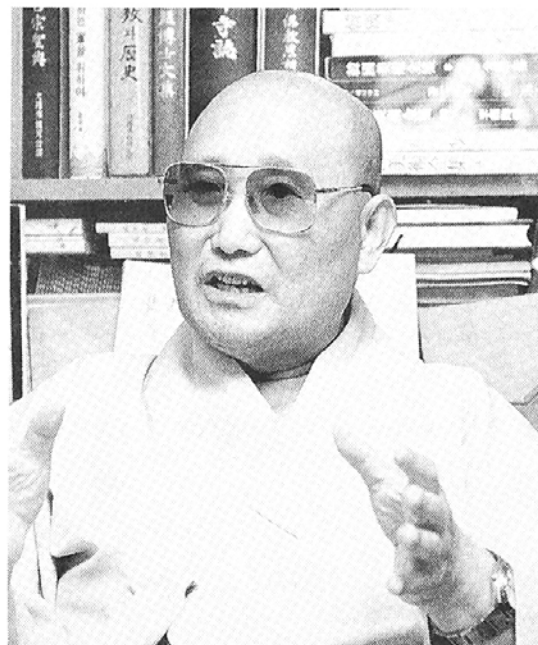
두 대덕(大德)의 만남은 순탄치 못했던 현대 한국불교사를 지켜 오며 차곡차곡 쌓아 이룬 수행의 결정(結果)을 활인(活人)의 겸(兼)으로 버트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자리는 부드럽고 온화했다. 끈공을 양식삼아 공부에 매진하던 시절에 의 회상,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대한 근심과 희망을 나누는 지혜의 법석이였다. 중추가정의 넉넉함을 수미산의 한가위 달로 띄워 올리는 두 대덕의 법담은 서로의 건강을 돌리며 시작됐다.



석주스님

스님은 1909년 안동에서 태어나 남전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법어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역경과 어린이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온 스님은 청교련 총재, 역경원 이사장, 조계종 포교원장, 총무원장, 중앙승가대학장 등 중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맡아 불교전반에 기여해 왔다.



송산스님

스님은 1927년 평남 순천에서 태어나 고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마곡사 강원에서 이력을 시작했다. 수덕사 선원에서 정진한후 조계종 총무원, 중앙종회, 동국학원 등에서 주요 소임을 맡았으며 66년 일본에 흥법원을 개설한후 30여개국에 흥법원을 세우며 세계일화에 매진하고있다.

보이게 용맹정진 하는 스님이 한둘이 아니예요. 우리가 다 가고 난 뒤에도 큰 스님들이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송산:그런데 듣기만하게도 요새 공부하는 스님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수행환경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바른공부는 방편 초월해

석주:세상이란 언제나 변하는 것이지요. 요새는 대중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도시로 나와 포교당을 운영하는 스님들도 많고 혼자 토굴을 마련해 정진하는 스님들도 많아요. 그게 다 공부하는 환경이 변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런걸 두고 좋다 나쁘다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디건 어떤 환경에서건 자기가 수행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만 스스로 거스를 힘이 없으면 불발을 닦고 대중을 포교하는 일에 매진해야 겠지요. 수행과 대중교화는 따로 두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수행 가운데 포교가 있고 포교하는 가운데 수행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산: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 아닙니까. 참심이건 열불이건 사경이건 그것이 자기수행과 교화의 방편으로 잘 쓰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칭찬제일 혜암스님 법담 틀리면 용서 안했죠” 가르침 정신마저 한글화해야 진정한 역경

송산:스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석주:하루 세끼 끼니 잘 챙기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책 읽고 이런저런 행사에도 나가고... 나야 이렇게 살지 뭐. 송산:건강하신 법체를 봐오니 기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찾아 뵙게 되어 면목 없습니다.

서로 할일 잘하면 되지

석주:자주 만나는 것이 대승니까. 서로 할 일 잘하면 되는 것이지. 스님이야 한국 불교를 세계에 전하는 최고의 수행을 하시는 분인데, 종종 소식은 들었어요. 참으로 장하고 훌륭하십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 포교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송산:정화시절에 스님의 뒤를 이어 중무를 걱정하던 것이 어찌 같은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주:그때 스님이 애를 많이 썼지요. 그런 시대적 혼란과 노력이 오늘날을 만들 어낸 것 같아요.

송산:그런데 요새는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해서 모든게 정신 없이 돌아가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분명한 중생계의 실상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스님께서도 젊으셨을 때 여러 절을 다니시며 공부하셨는지요.

석주:나야 어려서부터 선학원에 살다가 법어사에서 나이 스물에 계를 받고 한 6년 공부하고 다시 선학원으로 와서 오래 머물렀지요. 그때 적음스님이 원장이셨는데 나는 그 스님의 일을 많이 거들었어요. 참, 송산스님이 수덕사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나도 수덕사의 정혜도량에서 밤을 한 철 먹은 적이 있어요. 만공 혜암 효봉 공봉 고봉스님들이 다 살아 계실때였어요.

송산:저도 오래전에 그런 얘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 조금 전의 일인 것 같군요.

석주:(눈을 지긋이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참 그 시절이 좋았지.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 그때는 정말 공부 잘 하는 스님들이 많았거든요.

송산:공부만 잘 했습니까. 일도 잘 했지

요. 일도 공부였고 하루에 무와 잡곡으로 쑨 밀전 죽 한그릇 먹는 것도 공부였지만 말입니다. 정말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런 대중 생활에서는 배고도 없어서 목집 하나를 놓고 다루는 경우마저 있었습니까.

석주:그때야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죽 한 그릇이라도 줘나오. 내가 정혜사에 있을 때 효봉스님이 입승을 보셨고 나는 그 스님에게 무서운 감명을 받았어요. 아, 효봉스님이 말이지, 설날 그름계였는데 목 아래에다가 칼을 세워 두고 혼자 정진을 하시더라 말이에요. 참 무서운 열정이었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이레를 그렇게 용맹정진 하시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아래 칼 놓고 정진

송산:영운스님이란 분은 한 겨울에도 문을 열어 놓고 참선을 하셨잖아요. 추위를 못이겨면 자기를 이길 수도 없다면서 말입니다.

석주:그렇지요.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두 한가락씩 특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스님도 다 잘 알고 있을겁니다.

송산:알다마더요. 거 왜 혜암스님은 남의 칭찬을 잘 해서 '칭찬제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석주:맞아요. 혜암스님이 '칭찬제일'이었지요. 그 분은 무조건 남을 칭찬하며 일생을 사셨는데 고암스님도 칭찬에는 매우 후하신 분이었어요. 그 스님들은 칭찬하면 죄인도 그 죄를 뉘우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혜암스님이 절대 칭찬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공부를 점검할 때, 그러니까 누구하고 법담을 하다가 틀린 말이 나오면 용서를 안했어요. 한번 걸리면 두고두고 까는데 참 매서운 면모였어요.

송산:칭담스님은 '인목제일'이었습니까. 참 잘 참으시는 분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셨지요. 인목을 큰 도가 베어 있음을 칭담스님은 많이 보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스님은 누가 찾아가서 이리저리너 흥을 잡고 목을

해도 목목히 다 들고 계시다가 끝에 한마디 특 던지시는데 그게 "스님 왜 그러십니까?"였지요. 그러면 흥분해서 떠들던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기 일쑤였고요.

(두 대덕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석주:춘성스님은 욕을 잘하기로 일들이 많았어요. 참 욕 한번 걸릴지 잘 했지요. 그런데 그 스님의 욕은 더러 욕이 아니라 법문 같았다고요. 공부를 잘 하는 스님이 많은 시절엔 그렇게 재미있는 일화도 많은가 봅니다. 설봉스님이나 '방울 스님'이라 불렀던 흥도스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니 우리 송산스님도 해외전법의 제일인자가 아니십니까.

송산:그럼 석주스님께서 어린이 포교와 역경의 제 일인이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치열한 공부와 무애의 법력을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걱정이 많은데요. 스님, 사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석주:시대가 바뀐 것 뿐이지 부처님 법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눈에 안

석주:우리나라 불교를 통불교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원효스님이 그랬고 성철스님도 "종단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면 통불교라고 해야한다."고 말했었지요. 법계의 진리를 체득하고 증상을 교화하는 것은 부처님 재세시나 다를 것이 없어요. 법계의 실상을 바로 보고 바로 증득하는 공부가 된다면 방편에 그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송산: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배는 버려야한다'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우리의 공부도 강을 건너는 것이지 배를 타는 것에 목적이 있는건 아니겠습니까. 스님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들이 난립해 포교의 전성기를 맞게 하는데 스님 생각에 불교의 포교는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주:외국에 나가 제일 포교를 많이 하신분이 그런 질문을 하니 뭐라 할말이 없군요. 우리나라 불교의 포교는 점차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포교승과 포교법사가 다니면서 포교하는 것만 포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가 여러 방면으로 발전하는 것 그게 다 포교거든요. 요새 조계사

“멀건 죽 한그릇 먹는 것도 공부였는데...” 세계인 불교정보 욕구 늘어...교계대책 세워야

전통사찰 지붕의 美를 되살린 가람 銅기와

무거운 흙기와에서 천년가람을 가람동기와가 보호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불철주야 불음을 전하시는 스님들께 합장 향배 올립니다. 금번 가람 동기와에서는 다년간의 기술개발로 품격을 향상시키고 전통사찰지붕의 미를 되살린 가람 동기와 신개발품을 생산하여 시공 A/S를 책임지고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제위의 관심있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불기 2540년 가람동기와 대표 이주영 합장

가람동기와의 장점과 특징

- 반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동파로 인한 기와의 손상이 전혀 없어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양기와 솟기와는 비 바람 물의 역류를 막을수 있게 설계제작되어 완전 방수가 가능하여 건물의 목재를 보호합니다.
-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30장씩 BOX로 포장되어 운반, 보관의 편리성은 기본이고 평당 중량이 45kg으로 (흙기와 680kg, 첨기와 550kg) 가람의 변형을 막을수 있습니다.
- 동기와의 색상변화 동기와는 다른 금속에서 불수 없는 특유의 색상변화를 일으켜 최초의 적동색에서 갈색→암갈색→홍갈색→녹청색으로 변하여 고색장런한 멋을 더해줍니다.
- 시공이 간편합니다. 완전 조립시공으로 인한 시공의 간편함으로 인한 불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줍니다.

가람동기와 설계, 제작, 시공단계

동기와 제작 → 시공설계 → 직접시공 → 시공 감리 → 하자보수 및 10년간 A/S

가람동기와에서는 전부분 공정을 본사가 직접 책임을 다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감소합니다.

동기와 불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 720-5121 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서울 중로구 견지동 114-40 청송B/D 202호 가람동기와 02)720-5121